

팝페라 테너 임형주 빈곤퇴치 카페지기 봉사

유네스코 평화예술 전선대사이자 2015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팝페라 테너 임형주(29)가 지난 17일 유엔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일일 나눔 카페지기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임형주는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정문 앞에서 일일 카페 주인 겸 바리스타로 변신, 모금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나눠줬다. 또 행사 현장에서 임씨는 정기후원을 신청한 사람들과 직접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친필사인 CD를 증정하기도 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진행된 교육 소외 아동 노동 체험 프로그램과 지구촌 교육 나눔 저금통 만들기, 지구촌 교육지원 사업 등 모금과 행사 수익금 전액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소외 계층의 교육지원 활동에 쓰인다.

한편 임씨는 오는 12월31일 광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임형주 L.O.V.E.' 콘서트를 갖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사진=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공〉

조선대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개소식



조선대병원(문경래 병원장)은 최근 하중현홀에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광주'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 기관인 광주금연지원센터 개소식을 펼쳤다. <조선대병원 제공>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17일 광주·전남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서 31명의 온라인 서포터즈들과 함께 '제1기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했다. <광주비엔날레 제공>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6일 열린 제33차 전국 시·도지사 총회에서 제9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지적장애 첫 대표 선발... “화가 되는게 나의 꿈”

장애인기능올림픽 회화 국가대표 영암 소림학교 이용우씨

“물감. 다르다. 어렵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회화 부문 국가대표인 이용우(21)씨는 내년 3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난생 처음으로 ‘유화’(油畵)에 도전한다. 그동안 그려오던 수채화와는 물감 자체가 다르고 기법도 완전히 달라 고전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씨는 여섯 살 지적 수준을 가진 ‘자폐’(自閉)로, 지난 7월 역대 최연소이자 지적장애인 최초로 올림픽 회화 부문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회화 부문은 대부분 청력을 잃거나 약한 대신 시각이 발달하고 몸의 움직임에도 무리가 없는 청각장애인들이 강세를 보였다. 또 청각장애는 있지만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거나, 작가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출전하는 종목이었던 만큼 지적장애를 가진 그의 성과는 놀라움을 넘어 ‘충격’이었다.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는 것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 학원이나 대학까지 않고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재해석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표현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다.”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다. 그의 지도위원을 맡은 서양화가 신재남 작가와 한국미술협회 측도 세계대회 일정을

표현 능력 천재적 재능 가져

학원·대학 안 가고 터득 놀라워

유화 첫 도전 “참 어렵네요”

마치고 돌아오면 이씨를 작가로 인정하고 개인전도 열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한다.

지난 7월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주제는 ‘헬스장 풍경’. 제한시간은 4시간이지만 그에겐 2시간이면 충분했다. 월급급의 표현부터 헬스 기구의 ‘나사못’ 하나까지 완벽하게 재현해 냈다. 이씨는 자폐에서도 어느 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서버트 중후군’을 가졌다. 한번 본 장면은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놓은 듯 정확하게 기억해낸다.

“용우가 유난히 자동차를 좋아해요. 학교 선생님들의 모든 차 모델명은 물론, 차량 등록일자와 차량번호, 심지어 사이드미러에 찍힌 글씨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리곤 합니다.”

그의 재능을 제일 처음 발견한 뒤 가르치고 대회에도 출전시킨 박종록(48) 소림학교 교사는 “용우와의 첫 만남에서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09년 해남군 사회복지사의 연락을 받고 할머니와 둘이 해남에서 살고 있는 이씨를 찾았다. 특수학교인 영암 소림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박씨의 눈에 띈 것은 벽에 걸려있는 달력, 농촌 가정집에 하나씩은 걸려있는 농협이 평범한 달력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인쇄된 달력이 아니라, 누군가 그려놓은 ‘그림’이었다고 한다. 달력에 있는 작은 삽이진신 모습까지 완벽하게 재현돼 있었다. 옆에서 이씨의 할머니

는 “우리 용우는 만날 그림만 그려”라고 말했다. 박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이씨의 옆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씨는 꼭 미술수업 시간만 그림을 그린다. 대회가 임박해 수학이나 국어시간 등 다른 수업시간을 빼 연습을 시키면 심하게 반발한다. 방과 후에도 절대 그림을 그리지 않아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가르쳐야 한다. 나름대로 짜진 일과가 있는데, 거르지 않고 쓰는 일기도 ‘하루일과’를 나열한다. 그래서 일기는 매번 비슷하다. 자신의 ‘틀’을 바꾸고 싶지 않아하는 게 자폐아의 특징이다.

그런 그도 “열심히 하면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달래면 말을 곧잘 들었다. 그러나 이씨의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는 지난 2011년에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할머니 보고 싶다. 근대 하늘나라 가서 볼 수 없다”고 혼잣말하곤 한다.

“딱히 가르치는 것 없어도 워낙 능력이 뛰어나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도 그림 뿐이죠. 용우의 꿈은 ‘그림을 그리고 사는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워낙 출중한 선수들이 나오는 터라 프랑스 올림픽 우승은 힘들겠지만, 손자를 흔차 두고 하늘나라에 가신 할머니는 용우를 기특하게 바라보고 계시겠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의료특집’을 만들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사 제작팀이 윤택림 전남대병원장을 인터뷰하고 있다.

외국언론들 전남대병원 관심 높다

中TV 이어 카자흐 국영TV 첨단 의료장비·시설 등 촬영

전남대병원에 대한 외국 대형방송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국영TV 채널인 ‘카자흐스탄’ 방송사가 ‘한국의료특집’ 제작을 위해 지난 16일 전남대병원을 방문, 윤택림 병원장 인터뷰와 의료시설 및 장비 그리고 진료현장 등을 촬영했다.

외국방송사의 전남대병원 취재는 지난 6월 중국 요녕TV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해외의료시장 개척에 활기를 띠고 있는 전남대병원에 대한 외국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카자흐스탄’ 제작팀은 오전 병원장 인터뷰에 이어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이동해 주요 의료시설 및 장비 등을 촬영했으며, 오후 전남대병원에서 심혈관 시술 장면도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환자 안내시스템이나 첨단장비를 이용한 진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의료진에게 직접 물어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촬영의 책임을 맡은 엘라 안드레이브나 PD는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병원 현대화 등 강력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병원의 사례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병원 세 곳을 취재하는데 카자흐스탄 등 소련권 환자가 비교적 많을 전남대병원을 찾게 됐다”고 촬영동기를 설명했다.

이날 촬영된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말 카자흐스탄서 방영될 예정이며, 러시아·키르기스스탄·몽골까지도 방송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산악인 김홍빈 ‘무등산 무돌길’ 완주 나선다

산악인 김홍빈씨가 무등산 국립공원을 알리기 위해 ‘김홍빈 대장과 함께 걷는 무등산 무돌길’ 행사를 진행한다.

(취어등산리조트의 후원을 받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길, 먼저 걷고 알리기’를 슬로건으로, 1박2일간 무등산 무돌길(51.8km) 완주에 나선다.

김씨는 21일 오전 8시 광주시 북구 각화중학교에서 출발해 등촌과 무등 등을 거쳐 안양산휴양림(30km 코스)에 도착한 뒤, 다음날 큰



재주저장과 용연등을 지나 광주역(21.8km 구간)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김홍빈 대장은 지난달 7박8일 일정으로 지리산 둘레길(245.5km) 산행을 성공하는 등 호남지역의 명산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김호남 목포상의회장 박대통령 美 순방 동행 대외활동

김호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동행해 대외활동을 펼쳤다.

김 회장은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지난 14일 박 대통령과 정부수행원, 경제사절단, 미국의 주요기업 CEO 등 300여명이 참석한 ‘한미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서 한국이 조속히 TPP에 참여해 한미 양국이 대평양경제시대를 주도해 나아가 힘을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워싱턴 DC 상공회의소 할리 워그 회장(사진 왼쪽)을 만나 상호우호증진과 지식경제를 위한 혁신·협업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김 회장은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을 시작으로 뉴욕 아



스토리아호텔에서 코트라가 주관하는 뉴욕 비즈니스 파트너십 일대일 상담회에도 참석해 미국 경제인들과의 협력방안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논의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최희동(전남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임현경씨 아들 석인군 윤태영·정태경씨 딸 소희양=24일(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스킨라티움 1층 오렐리아홀(당일 오전 11시 연주체육관 버스 출발), 피로연 19일(월) 오후 5시30분~8시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 3층 루시아홀.
▲이민래(세브라)·양승희(효천초 교장)씨 아들 세영군 남상엽·정미양씨 딸 연희양=25일(일) 오후 1시50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컨벤션 3층 알루체홀.

종친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갑우) 청년 이화월례회=20일(화) 오후 7시 도지연 회의실 3층 062-225-5636.
▲전주강씨 광주·전남 청년회(회장 강지훈) 임원회의=22일(목) 오후 6시30분 중화회관 062-228-3368.

동창회

▲대촌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희수·3회) 제9회 한마음 체육대회=24일(토) 오전 8시 모교 운동장, 문의 사무국장 박창기(8회) 010-5604-6685.
▲광주 북성중학교 총동창회 제40회 한마음대축제=24일(토)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광주 북성중학교 잔디구장(우천시 체육관) 062-523-1300.
▲광주 동충등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24일(토) 오전 11시 광주 동충등학교 운동장.
▲제38회 일고인 한마당=25일(일) 오전 9시 광주제일고등학교 운동장 062-527-1955.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

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혹대처 및 단주법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 보호. 062-959-2340.

모집

▲디자인 스킵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인쇄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 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은 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범당 062-385-1336.

부음

▲한연자씨 별세 김척(삼성전자 부장)씨 빙모상=발인 20일(화) 광주 스키장 레식장 201호 062-951-1000.

▲박노현씨 별세 승국·재용·지현씨 부친상=발인 20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강정녀씨 별세 하용수·익수·연선씨 모친상=발인 20일(화)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김수남씨 별세 양·영·철·형·순자·정자·란씨 부친상=발인 20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1호 故임홍순 님 (여/91세) 子/子婦: 홍명석/김 진, 명석/강선자, 경석/고연순 女/婿: 홍영주, 현숙/이상대 孫: 홍성민, 성호, 승영, 서영, 서경, 이영림, 장영, 연석 * 발 인: 10월 20일 * 장 지: 나주 다도 선영 * 연락처: 227-4381	301호 故정경기 님 (남/81세) 子/子婦: 장기영/김선희, 규근/조지영 女/婿: 장민희/서영숙, 민희/이정희 未亡人: 민영화 * 발 인: 10월 19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2
401호 故김석호 님 (남/69세) 子/子婦: 김만중/이영란, 만중 女/婿: 김민희/서영준 * 발 인: 10월 19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3	402호 故안연련 님 (여/63세) 子/子婦: 최태우/안가영 女/婿: 최지혜/민홍일 * 발 인: 10월 20일 * 장 지: 나주 노안 선영 * 연락처: 227-4384
101호 故김은성 님 (남/81세) 子/子婦: 김윤기/조지은 女/婿: 김훈자/유승룡, 훈정/임연수, 미승/사주삼 未亡人: 김경자 * 발 인: 10월 19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5	102호 故김강산 님 (남/63세) 子/子婦: 김윤희/김효진, 민희/서유진 * 발 인: 10월 20일 * 장 지: 화산 선영 * 연락처: 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